

광주시교육청, 친일잔재 청산 설명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1일 '교육현장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 설명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청의 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조사하고 청산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친일잔재 조사 발표 및 교육적 활용방안, 교과 교재 사례발표, 교육청 행정사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광주친일잔재 조사'를 담당했던 광주교육대 산하협력단 김덕진 교수를 초청해 친일잔재 조사 및 청산의 필요성과 방향, 교육적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안내했다. 또한 최근 교과 교재 작업

을 완료한 광덕중학교 박종모 교감으로부터 교과 교재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휘국 교육감은 "과거 우리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친일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다시는 악의 편에 서서,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선을 탄압하고 자기 영달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장선생님들을 모셨다"며 "친일했던 무리들이 특세하고 출세하고 선한 사람과 정의의 편에 서서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억압하려 하고, 이게 우리 사회에 정의가 숨 쉴 수 없는 사회로 가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몸이 다치지 않기 위해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장 300여명 대상
절차·청산 사례 소개 "교육이 먼저 나아가야"

서는 흔히 하는 말로 '앞서가지 말고 중간만 해라'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를 점점 병들게 한다"며 "우리 학교는 아니고 우리 학교는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 학교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우리 사회 아름다운 정의를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분야 친일 인물과 금석문, 건축물, 지하시설과 방공호 등 친일잔재 조사 내용을 발표한 광주교대 김덕진 교수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광주에서는 (친일 청산) 먼저 하면 좋지 않겠냐"며 "전체적인 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며 친일 청산을 광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과 연대를 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덕중 박종모 교감은 자신이 직접 참여했던 교과 교재 사례발표를 진행한 후 "교과를 교재하며 각계각층에서 격려와 함께 '만지'도 많이 들어왔다"며 "친일파라기엔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름대로 버티다가 대동아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애 지사들이 많이 넘어가서 지금은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러시아나 중국 쪽 독립운동가 묘들을 가보면 그냥 휴무더기다. 풍찬노

숙을 견디다 돌아가신 그분들은 억울하다는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교과 교재)을 마치고 생각을 해봤다"면서 "우리가 어깨 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른 사회적 영역은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 영역에서는, 진리를 논하는 영역에서는 바로잡는 게 순리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광주는 3·1만세 운동 선봉지인 화성독립운동 산실이다. 교육이 먼저 나아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각급 학교에 7월12일까지 친일잔재 학교 상징물 현황 등 기초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8월까지 구체적 자료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2월까지 친일잔재 학교 상징(교과, 교과, 교목 등)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념비, 건축물, 동상 등을 다크투어리즘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에는 친일잔재 청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후 친일 자료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침이다. 각급 학교가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친일잔재 자료 가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11일 전남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전담 노무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전남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권익보호 강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전문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47개교에 '1교 1노무사'를 전담 배치해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전담노무사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참석 및 학생 대상 사전 안전 교육 지원, 현장실습에 참여할 선도기업 발굴 및 지원컨

설팅 운영 실태지도점검 지원 활동을 한다.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한 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에 따른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및 부당대우 등에 대한 권리 구제 활동도 한다.

위촉식에서 이기봉 부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및 취업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전남 직업계고 취업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인재과 이현희 과장은 "안전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청소년 권리 보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김정환 기자

순천대 약대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150여명 참석 5학년 35명 예비약사 첫 걸음 축하



순천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손영진)은 최근 오전 11시 교내 천연물신약연구소 죽호홀에서 '2019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했다.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는 병원에서

의 실무실습을 앞둔 예비약사들이 약사로서 첫 출발 내딛기 전, 근대 약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니오스코 리데스' 선서를 하는 등 전문 약사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사명감, 생명존중의 정신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대 교영진 총장과 손영진 약학대학장, 전라남도

약사회 윤서영 회장, 순천시 약사회 박기철 회장이 참석하였고, 약학과 교수진을 비롯한 재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5학년 35명 예비약사의 첫 걸음을 축하하였다.

약학과 35명의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제약공학에서의 제약실습과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찰병원, 전남대학교병원에서의 병원실습, 그리고 지역의 약국과 학교 연구실 등에서 본격적인 실무실습을 진행한다.

교영진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직업으로서 약학을 대하는 자세를 넘어 생명을 사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무실습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환우들과 환우 가족들의 이픔을 공감하는 약사의 길을 가신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약사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영광교육지원청, 노래와 춤으로 펼치는 흡연예방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준석)은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1일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 '댄스퀸'을 공연해 눈길을 끌었다.

영광교육지원청은 단순하고 형식적인 흡연예방교육과 다르게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금연송, 금연댄스 체험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공연을 마련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고흥교사들, 학교 교육과정에 마을을 담다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길주)은 11일부터 5회에 걸쳐 중회의실에서 교사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을 연계 창의적교육과정 재구성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성을 담은 수업 구성 역량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 마을을 배움의 교재로 삼고 마을교사를 활용하여 협력수업(co-teaching)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박현숙(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과학교사, 전 장곡중 수석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시흥시 사례를 공유했다. 이후 마을 연계수업 전문가인 정운영, 최성환, 기나영 선생님의 지도 아래 초·중등 분과로 나누어 교육과정 재구성 실습을 진행한다.

양용은 교사(고흥도덕중)는 "우리 지역에는 배움의 소재와 자원이



많음에도 이를 활용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다.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길주 교육장은 "2015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창의·융합형 수업이다. 지역성을 담아내고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수업이 곧 창의·융합이다"며 적극적인 마을 연계 수업을 강조하며 아낌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고흥=한윤섭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암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